

48 의심 많은 도마

Chapter

요 20:24~31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찬양 162장 (들어 보겠니)

오늘 배울



말씀

1. 믿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명한 사실인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압니다.

마음 열기



서커스에서 그네를 타고 한 사람이 점프를 해서 공중회전을 한 후 동료로 붙잡는 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공중회전을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붙잡아 주는 사람입니다. 공중회전을 하는 사람은 동료가 자신을 반드시 붙잡아줄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저 팔을 뻗고 가만히 있으면 잡아 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요. 만일 이 믿음이 흔들려서 자신이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면 곧바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결국 이 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말씀을 이해하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며 한 목소리로 힘있게 증거하였지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확실한 증언을 듣고도 의심할 뿐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도마 역시 사랑하셨기에 8일 후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받을 축복과 믿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도마가 자신의 상처를 직접 만져 보고라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대신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 이라 (벧전 1:8~9)

whom having not seen you love. Though now you do not see Him, yet believing, you rejoice with joy inexpressible and full of glory, receiving the end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1 Pt 1:8~9)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롬 4:18~22)

(왕하 7:16~20)

(약 1:6~8)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신명기 7장 17~24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오?'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17절을 읽고 적어 보세요.
2. 이러한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해결책은 무엇인지 18~19절을 읽고 빈칸 안을 채워 봅시다. '그들을 ()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하라.'
3.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피하여 숨은 적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는지 20절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4.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한 번에 조금씩만 승리하게 하시나요? 단번에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는 큰 승리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22절을 읽고 적어 보세요.
5. 하나님께서는 필경은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23~24절에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쟁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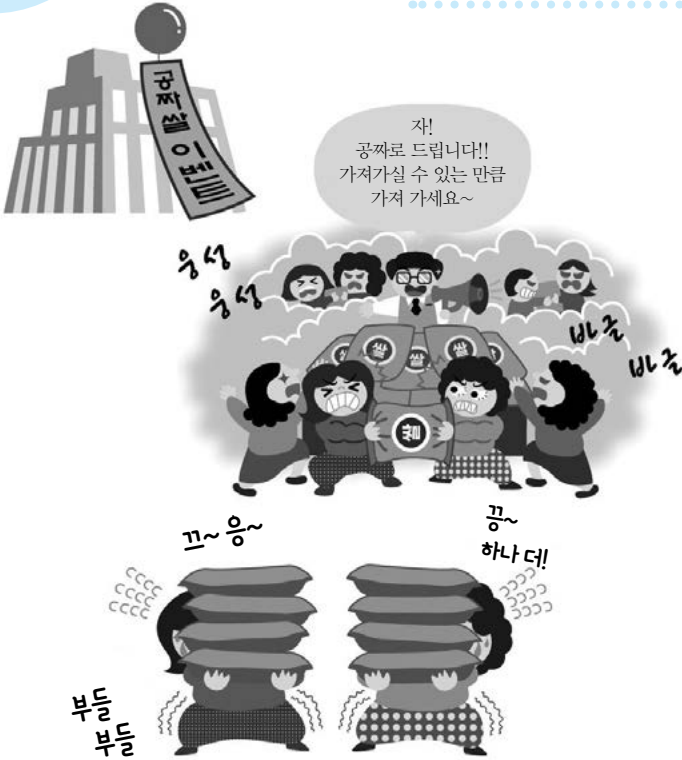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과 교제로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이나 경험, 감정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가장 값진 공짜 선물은



보세요~
 사람은 공짜라고 하면 아무리 무거운 쌀포대라도
 허리가 휘어지도록 들고 갑니다.
 공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소중한 것들...
 공기, 낮과 밤, 춘하추동, 여러가지 자연현상들...
 그 중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공짜 쌀과는 비교도 할 수없는 소중한 구원에는
 왜 관심이 없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9)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

7층에 있는데 화재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엘리베이터, 계단 모두 무너졌고 유일한 탈출구는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길 뿐입니다. 다행히 나를 발견한 소방관이 1층에 안전 매트리스를 펴고 괜찮으니 뛰어내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매트리스가 내 눈에 어설피 보입니다. 더구나 소방관의 인상 역시 왠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뛰어내리지 않을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받을 확률은 10%도 안 돼.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는 불타는 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깍재깍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의심만 하고 주저한다면 나는 결국 불에 타서 죽고 맙니다.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